

학교문법 다의어 교육 내용의 현황과 대안

임지룡(경북대)

<차 례>

1. 들머리
 2. 학교문법의 다의어 교육 현황
 3. 학교문법 다의어 교육의 바람직한 내용
 4. 마무리
-

【버리】 이 글은 ‘2009 개정 교육과정(2012.12.)’에 따른 학교문법 다의어 교육 내용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의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혔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다의어는 ‘초등학교’의 ‘문법’ 및 ‘고등학교’의 ‘독서와 문법’에 명시된 채 ‘중학교’와 ‘고등학교(『국어 I』)’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이 불충분하며 학교급 위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교과서’에서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초등학교 2종, 중학교 7종, 고등학교 『국어 I』의 7종 및 『독서와 문법』 6종 교재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다의어를 독자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독서와 문법』에서는 교재 간 공유의 폭이 매우 좁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다의어에 관한 비명시적인 기술로 교과서에서 다의어의 기술은 자의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다의어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의어 교육의 내용

요소로 ‘개념 학습’, ‘의미확장 학습’, ‘의미구조 학습’, ‘비대칭성 학습’을 설정하였다. 둘째, 4가지 교육 내용 요소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및 심화 과정의 4단계 위계를 설정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심화 과정에서 ‘사다’ 및 ‘팔다’의 중심의미와 확장의미의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탐구학습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주제어: 다의어, 중심의미 및 확장의미, 학교문법,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의어의 개념 학습 · 의미확장 학습 · 구조 학습 · 비대칭성 학습

1. 들머리

이 글의 목표는 현행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의어 교육 내용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통해 다의어 교육의 바람직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의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어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단어의 의미는 대부분 다의적이다. 둘째, 학습자가 가진 어휘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서 다의어 교육이 필수적이다. 셋째, 단어 의미의 다의적 확장은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과 상관성을 지닌다. 넷째, 다의어는 사전의 편찬 및 활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다섯째, 다의어 용법의 바른 이해와 사용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의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문법에서 다의어 교육의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그 위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이 글은 ‘2009 개정 교육과정(2012.12.)’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 다의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 그 특성과 문제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다의어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다의어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다의어를 다룬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국어 5-1㉔』 및 『국어 활동 5-1㉔』, 중학교 검정 교과서 14종 중 『국어③, ④』의 7종, 고등학교 국어일반의 검정 교과서 11종 중 『국어 I』 7종 및 국어심화의 검정 교과서 『독서와 문법』 6종을 검토·분석하기로 한다.

국어교육의 장에서 다의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¹⁾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중학교의 다의어 교육 방안에 관한 한유리(2012)가 있을 뿐이다. 이밖에 박진숙(2004)에서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지도방안을, 김영기(2000)·엄기예(2003)·임재란(2008)·주현정(2010)에서는 탐구 학습을 통한 다의어의 의미지도를, 유영은(2014)에서는 사전에서 다의 동사 배열의 교육 방안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다의어 교육 현황 전반을 검토한 바탕 위에서 다의어 교육의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 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로 다의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국어교육 현장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다의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교수자들에게 정보의 부재 및 불균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학습자가 속한 종적, 횡적 집단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다. 둘째, 다의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돕고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언어, 사회문화적 배경, 학습자의 인지체계에 대한 발견과 이해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 셋째, 다의어를 통해 학교문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다.

1) 한편,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다의어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로는 문금현(2005, 2006), 고경태(2008), 정수진(2009), 하화정(2011), 이민우(2012), 서희경(2013), 윤정화(2013), 왕미자(2014) 등이 있다.

2. 학교문법의 다의어 교육 현황

여기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2012.12.)'에 따른 학교문법에서 다의어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주요 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²⁾

2.1. 초등학교

2.1.1.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5~6학년군' '문법' 영역의 '내용 성취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과 같다.

- (1)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결정됨을 이해시키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유적 의미가 생기는 현상도 지도한다.

(1)은 <표 1>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초등학교 5~6학년』에서 보다 더 구체화되는데, 다의어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이 계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성취수준'에서 상중하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다의어'를 '동음이의어'와 함께 다루고 있다.

2) 현행 교육과정의 기반이 된 제7차 교육과정(1997.12.30.)의 경우 '다의어'는 '국어지식' 7학년에서 “〈내용〉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기본〉 예를 국어사전에서 찾는다.／〈심화〉 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로 되어 있다. 한편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1학년 2학기 『생활국어』에서 “5. 낱말의 의미: 소단원(2. '다의어')-보충·심화/이 단원을 마치며”의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고등학교 문법(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에서 '다의어'는 '의미의 종류'의 일환으로 제시되며, '학습활동'에서 '보다'를 통해 간략히 기술되고 있다.

〈표 1〉 초등학교 다의어의 성취기준·성취수준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1642.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642-1. <u>다의어</u> 와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상 <u>다의어</u> 와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 <u>다의어</u> 와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이해한다.
		하 <u>다의어</u> 와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2.1.2.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다음 두 곳에 기술되어 있다.³⁾ 즉 『국어 5-1㉔』의 3단원 ‘상황에 알맞은 낱말’에서 ‘다의어’의 이해와 표현에 관한 내용이 20쪽 분량으로 제시되고, 『국어 활동 5-1㉔』에 ‘다의어’의 활동이 15쪽 분량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어』 6차시, 『국어 활동』 2차시 총 8차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 체제’는 〈표 2〉와 같다(교사용 지도서 121쪽 참조).

〈표 2〉 초등학교 다의어 관련 단원의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 체제

단원	단원 성취 기준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목표		학습 성격
상황에 알맞은 낱말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국어	1~2. 다의어에 대하여 안다. 3~4.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을 안다. 5~6. 다의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 학습 이해 학습 적용 학습
			국어 활동	7~8. 다의어 알아맞히기 대회를 할 수 있다.	실천 학습

3) 이재승 외(2015). 『초등학교 국어 5-1㉔』/『초등학교 국어 활동 5-1㉔』((주)미래엔) 참조.

〈표 2〉와 관련된 『국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의어’의 정의 (2)와 이해 및 표현을 위한 용례 (3)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을 다의어라고 한다.” (『국어 5-1㉔』 22쪽, 『국어 활동 5-1㉔』 29쪽)
- (3) a. 일으키다: “다시 회사를 일으키다.”의 ‘일으키다’는 어떤 뜻일까?
 b. 얼굴: ㉔너희가 내 얼굴을 세워 주었구나. ㉔싫은 얼굴 하지 말고 웃어. ㉔우리나라 리듬 체조계에서 새 얼굴이 등장하였습니다. ㉔고려청자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만한 대표 문화재입니다.
 c. 먹다: ㉔밥을 먹다. ㉔마음을 먹다. ㉔나이를 먹다. ㉔골을 먹다.
 d. 국어사전에서 ‘목, 문, …’ 등 다의어 찾아보기
 e.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에 나오는 ‘틈’의 뜻 파악하기: ㉔서로 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라. ㉔책상 틈을 바짝 붙였다.
 f. ‘보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기: ㉔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 있고…. ㉔옛말에 보면…. ㉔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고….
 g. ‘길’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기: ㉔네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란 것이…. ㉔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고 차별해서 사귀면…. ㉔상우는 먼 길인데도 아버지와 걷는 것이 즐거워….
 h. ‘아래’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기
 i. 발: “영희가 발이 빠르구나.”, “저 애를 어떻게 아니? 너 참 발이 넓다.”
 j. 다의어 ‘오르다, 끌다, 만들다, 가리다’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짧은 글 써 보기

K로 되어있는
것을 j로 수정
했습니다.

『국어 5-1㉔』의 ‘상황에 알맞은 낱말’ 단원은 다의어의 개념과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다의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지도서’ 120쪽 참조), (2) 및 (3)을 중심으로 그 개요를 보기로 한다.

(2)와 (3a-d)는 ‘단원 도입’ 및 ‘다의어에 대하여 알기’의 주요 내용이다. 즉 (3a)는 다의어에 대한 동기 유발의 용례로서, ‘회사를 일으키다’는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다.”의 용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3b)는 ‘얼굴’의 4가지, (3c)는 ‘먹다’의 4가지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는 활동이며, (3d)는 ‘목’, ‘문’ 등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는 활동이다.

(3e-k)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 알기’의 다의어 용례이다. (3e)의 ‘틈’ ㉠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거리’로서 ㉡의 ‘책상’에서처럼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와 다른 뜻을 파악하는 과제이다. 또한 (3f-h)는 ‘보다’, ‘길’, ‘아래’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기, (3i)는 ‘발’의 뜻을 알아보기, (3j)는 다의어 ‘오르다, 끝다, 만들다, 가리다’에 대해 짧은 글 쓰기 활동이다.

한편, <표 2>와 관련된 『국어 활동』의 개요를 다의어 용례 (4)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K로 되어 있는 것을 J로 수정했습니다.

- (4) a. ‘다의어 알아맞히기 대회 하기’의 예시 다의어: 손, 머리, 발
- b. ‘손이 크다.’→ 씹씹이가 후하고 크다는 뜻으로 “손이 큰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셨다.”와 같이 표현하기
- c. 위 대회에서 나온 다의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 지어 보기

(4)와 관련된 『국어 활동 5-1㉡』는 실천 학습이며, 『국어 5-1㉡』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다의어를 활용하여 ‘다의어 알아맞히기 대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다의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지도서’ 140쪽 참조). 이 활동의 개요는 ‘동기유발’, ‘다의어 알아맞히기 대회 준비하기’, ‘다의어 알아맞히기 대회 열기’, ‘정리 및 확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중학교

2.2.1.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1~3학년군 ‘문법’ 영역의 ‘내용 성취기준’에서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에 대한 사항은 (5)와 같다.

- (5)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국어의 어휘를 …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 보게 하고 단어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를 이해시킨다.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분석해 보게 한다.

(5)에서 보듯이 ‘교육과정’에서는 ‘다의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며, <표 3>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중학교 국어』의 <성취기준·성취수준>에서 ‘다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다.

〈표 3〉 중학교 다의어의 성취기준·성취수준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2948.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2948-2. 어휘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상 반의 관계, 상하 관계, <u>다의 관계</u> 등 다양한 어휘 의미 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장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했을 경우의 의미 변화나 표현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중 반의 관계, 상하 관계, <u>다의 관계</u> 등 다양한 어휘 의미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하 반의 관계, 상하 관계, <u>다의 관계</u> 등 다양한 어휘 의미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거나 해당 어휘 의미 관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2.2.2. 교과서

중학교 김정 교과서 14종 가운데,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7종의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⁴⁾ 중학교 2학년 과정인 『국어 ③, ④』에서 ‘다의어’는 ‘어휘의 의미관계’의 반의어, 유의어, 상하관계어 등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7종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2쪽 이내의 분량에서 ‘다의어’를 ‘동음이의어’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 둘 간의 구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다의어’의 의미 중에서 기본적인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되어 달라진 의미를 ‘주변(적)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을 위한 용례는 <표 4>의 21개 단어가 활용되는데, ‘배(6종)’, ‘손(5종)’, ‘타다(3종)’, ‘눈·쓰다·차(2종)’, ‘기타 15 단어(1종)’로 나타난다.

<표 4>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용례

	김태철 외		노미숙 외		민현식 외		방민호 외		우한용 외		윤여탁 외		전경원 외
다의어	날	머리, 길	보다, 타다	손	꽃, 맵다	아침, 눈, 손	타다	배	손				손, 가다
동음이의어		배	다리, 배		쓰다, 물	눈, 배, 이상							구두, 김, 차, 배

셋째, 윤여탁 외(2013)에서는 다의어의 특성을 ‘의미들 사이에 관련이 있으므로 사전에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4) 다의어를 다루고 있는 7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김태철 외(2013). 『국어③』((주)비상교육), 노미숙 외(2013). 『국어③』((주)천재교육), 민현식 외(2013). 『국어④』((주)좋은책신사고), 방민호 외(2013). 『국어③』((주)지학사), 우한용 외(2013). 『국어④』((주)좋은책신사고), 윤여탁 외(2013). 『국어③』((주)미래엔), 전경원 외(2013). 『국어④』((주)두산동아).

2.3. 고등학교 ‘국어 I’

2.3.1.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I’의 ‘문법’에서 ‘어휘 체계와 양상’에 대한 사항은 (6)과 같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국어』의 관련 사항은 <표 5>와 같다. 두 곳에서 보듯이, ‘다의어’에 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 (6)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같이 어종(語種)에 따라 체계를 세울 수도 있고, 어휘의 특성이나 의미 관계에 따라서 그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표 5> 고등학교 국어 I ‘어휘 체계와 양상’의 성취기준·성취수준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310112.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310112-1/2. 어휘의 {체계/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상 어휘의 {체계/양상}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어휘의 {체계/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 어휘의 {체계/양상}에 대해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3.2.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I』에서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검정 교과서 11종 가운데 7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⁵⁾ 이 경우 다의어는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에 대비되는 고유어의 한 특성, 또는 반의 관계의 부연 설명으로

5) 다의어를 다루고 있는 7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김종철 외(2014). 『국어 I』((주)천재교육), 김종신 외(2013). 『국어 I』((주)교학사), 박영목 외(2013). 『국어 I』((주)천재교육), 신동훈 외(2013). 『국어 I』((주)두산동아), 윤여탁 외(2013). 『국어 I』((주)미래엔), 이삼형 외(2013). 『국어 I』((주)지학사), 이승원 외(2014). 『국어 I』((주)신사고).

언급되고 있다. 1쪽 이내의 분량을 지닌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체계에서 고유어가 한자어에 비해 다의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김중신 외(2013), 박영목 외(2013), 신동훈 외(2013)에서 한자어에 대응되는 고유어의 다의적 용례를 (7)~(9)와 같이 들고 있다.

(7) 김중신 외(2013)

- a. ‘말[言]’: ‘말과 글’에서는 ‘언어’, ‘말할 차례’에서는 ‘발언’, ‘말을 꺼내다’에서는 ‘이야기’, ‘말이 퍼지다’에서는 ‘소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 b. 고치다: (건물을) 수리(修理)하다, (옷을) 수선(修繕)하다, (병을) 치료(治療)하다, (잘못을) 교정(矯正)하다, (정책이나 진로를) 수정(修正)하다, (세법을) 개정(改正)하다, (제도를) 개혁(改革)하다.

(8) 박영목 외(2013)

고유어 ‘느낌’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한자어: ㉠나도 알지. 그 느낌(→기분) 어떤 건지. ㉡그 책에 대한 느낌(→감상)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예감)이 든다.

(9) 신동훈 외(2013)

- a. 고유어 ‘고치다’를 각각 어떤 한자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옷을) 수선(修繕)하다’, ‘(병을) 치료(治療)하다’, ‘(잘못을) 교정(矯正)하다’, ‘(정책을) 수정(修正)하다’, ‘(부엌을) 개조(改造)하다’, ‘(시계를) 수리(修理)하다’처럼 다양한 한자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처럼 고유어는 그 용법에 따라 여러 개의 한자어와 대응한다.
- b. ‘고치다’를 대신할 수 있는 말 찾아 써 보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쳤다(→개조하다). ㉡글의 내용을 조금 고쳤다(→수정하다). ㉢컴퓨터를 고쳤다(→수리하다).

둘째, 고유어의 특성으로 의미 확장을 기술한 것으로, 이승원 외(2013)의 경우를 보면 (10)과 같다.

- (10) 고유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의미의 폭이 넓어져 하나의 단어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떡다’라는 고유어의 경우 ‘음식 등을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 보낸다.’라는 기본적 의미 이외에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겁, 충격 등을 느끼게 되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다의어에 대해 동음이의어와 구별되는 특성의 탐구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김종철 외(2013), 윤여탁 외(2013)를 보면 (11)~(12)와 같다.

- (11) 김종철 외(2013)
- a. 다의어: ㉠그 돼지는 한 배에 여러 마리 새끼를 낳았다. ㉡저 기둥은 배가 불룩하다. ㉢저녁을 먹지 못해 배가 많이 고팠다.
 - b. 동음이의어: ㉣물가가 배로 올랐다. ㉤풍랑 때문에 배가 뜨지 못하였다. ㉥할아버지는 물이 많고 단 배를 좋아하신다.

- (12) 윤여탁 외(2013)
- a.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b. ‘밥이 쓰다’의 ‘쓰다’와 ‘돈을 쓰고’의 ‘쓰다’가 동음이의 관계인가, 다의 관계인가?

넷째, 반의어의 개념과 특징, 사용의 유의점을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다의어를 기술한 경우로, 이삼형 외(2013)를 보면 (13)과 같다.

- (13) a. 다의어의 경우 여러 개의 단어와 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적절한 반의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b. 다의어는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진다. ‘봄이 간다.’와 ‘시계가 간다.’에 쓰인 ‘가다’의 경우 전자는 ‘오다’를, 후자는 ‘멈추다’, ‘서다’를 반의어로 볼 수 있다.

2.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2.4.1.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중 ‘문법’ 영역,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국어』에서 ‘다의어’와 관련된 사항은 (14) 및 <표 6>과 같다. 두 곳 모두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병행 기술하고 있다.

<표 6>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다의어 관련 성취기준·성취수준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310410.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해 한다.	310410-1. 단어의 의미 관계와 <u>다의어</u> 및 동음이의어 에 대해 탐구 할 수 있다.	상 독서와 관련하여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 관계와 <u>다의어</u> 및 동 음이의어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중 단어의 의미 관계와 <u>다의어</u> 및 동음이의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하 단어의 의미 관계와 <u>다의어</u> 및 동음이의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14)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글을 이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와 같은 단어의 의미 관계를 비롯하여 다의어, 동음이의어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2.4.2. 교과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검정 교과서 6종에서⁶⁾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1~2쪽의 분량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례를 중심으로 다의어를 정의하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 방식을 취한 교과서 5종과 제시된 다의어의 용례는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 (15) a. 박영목 외(2014): ‘손’(3가지 동음이의어 및 그 각각의 다의어)
- b. 윤여탁 외(2014): ‘떨다’(2가지 동음이의어 및 그 각각의 다의어)
- c. 이도영 외(2014): ‘손’(3가지 동음이의어 및 그 각각의 다의어)
- d. 이삼형 외(2014): ‘들다’(7가지 의미에 알맞은 짧은 문장 만들기),
 ‘머리’(중심적·주변적 의미 말하기 및 사전 찾기), ‘손’(중심적·주
 변적 의미 나누기)
- e. 한철우 외(2014): ‘머리’(5가지 뜻에 해당하는 용법 연결하기)

둘째,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탐구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식을 취한 교과서 5종과 제시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용례는 (16)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16d)의 이도영 외(2014)에서는 ‘의미의 복합 관계’로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기술하고 있으며, 윤여탁 외(2014) 및 한철우 외(2014)에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를 들고 사전마다 그 처리가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6) 다의어를 다루고 있는 6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박영목 외(2014). 『독서와 문법』((주)천재교육), 윤여탁 외(2014). 『독서와 문법』((주)미래엔), 이관규 외(2014). 『독서와 문법』((주)비상교육), 이도영 외(2014). 『독서와 문법』((주)창비), 이삼형 외(2014). 『독서와 문법』((주)지학사), 한철우 외(2014). 『독서와 문법』((주)교학사).

- (16) a. 박영목 외(2014): ‘쓰다’, ‘말’의 용법
 b. 윤여탁 외(2014): ‘떨다1’과 ‘떨다2’, 『표준 국어대사전』의 ‘크다1’과 『연세 한국어사전』의 ‘크다1’ ‘크다2’를 바탕으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구별의 어려운 점 말해 보기
 c. 이관규 외(2014): ‘쓰다’와 ‘질’의 용법
 d. 이도영 외(2014): ‘손’과 ‘내리다’의 용법
 e. 한철우 외(2014): 국어에는 ‘다리’(㉠다리에 쥐가 나다 ㉡오징어 다리 ㉢다리가 부러진 안경 ㉣책상 다리 ㉤한강 다리)와 같이 동일한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중심적 의미를 가진 별개의 단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전마다 동일한 형태의 단어를 다의어로 처리하기도 하고,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기도 한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 확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방식을 취한 교과서 2종과 기술된 내용은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 (17) a. 이삼형 외(2014): “㉠손자의 손 ㉡손이 부족하다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일의 성패는 네 손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의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누어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손’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 설명하기
 b. 한철우 외(2014): ‘머리’라는 단어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 부분’이다. 주변적 의미는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말한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머리털’ 등은 ‘머리’의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이다. 다의어의 의미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점차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머리’의 주변적 의미 중에서 ‘단체의 우두머리’나 ‘사물의 앞이나 뒤’를 가리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5. 다의어 교육의 주요 사항과 문제점

위에서 기술한 바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다의어 교육 내용의 주요 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5.1. 주요 사항

먼저,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보기로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군’ ‘문법’ 및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다의어’를 ‘문법’의 내용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2년에 개발된 초등학교 ‘문법(1642-1)’, 중학교 ‘문법(2948-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310410-1)’의 ‘성취기준·성취수준’에서 ‘다의어’ 또는 ‘다의 관계’의 기준 및 수준을 상중하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4년에 개발된 초등학교 ‘문법(1642-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310410-1)’의 ‘핵심 성취기준’에서 ‘다의어’에 대한 핵심 성취기준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주요 사항을 보기로 한다. 첫째,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국어 5-1㉔』 및 『국어 활동 5-1㉔』에서, 중학교 검정 교과서 『국어 ③, ④』의 7종에서,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국어 I』의 7종에서, 『독서와 문법』의 6종에서 ‘다의어’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독서와 문법』에서 ‘다의어’의 특성에 관한 다음 3가지 서술이 주목된다. 즉 이도영 외(2014)에서 다의어 및 동음이의어를 ‘의미의 복합 관계’로 다루고 있으며, 윤여탁 외(2014) 및 한철우 외(2014)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를 들고 사전마다 처리 방식이 다른 점을 밝히고 있으며, 이삼형 외(2014) 및 한철우 외(2014)에서 의미 확장의 과정 및 경향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다.

2.5.2. 문제점

먼저, 교육과정의 문제점 3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의어’에 관한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다의어에 대한 기술은 ‘초등학교’의 ‘문법’ 및 ‘고등학교’의 ‘독서와 문법’에 국한된 채, ‘중학교’와 ‘고등학교(『국어 I』)’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둘째, ‘성취기준·성취수준’에서는 초등학교 ‘문법(1642-1)’, 중학교 ‘문법(2948-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310410-1)’에서 기술되고 있으며, ‘핵심 성취기준’에서는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문법(1642-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310410-1)’에서 기술되고 있다. 셋째, ‘다의어’의 내용이 불충분하며 학교급간 위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문제점 3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의어’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⁷⁾ 그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다의어를 독자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의 경우 동음이의어와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국어 I』에서는 한자어와 대비되는 고유어의 특성 또는 반의어의 부차적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6종 교과서의 경우 내용 요소 간 공유의 폭이 매우 좁다. 둘째, 초등학교의 경우 제시된 용례의 수준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어렵다. 예컨대, (3b)의 ‘얼굴’에 대한 ‘얼굴이 둥글다’, ‘싫은 얼굴’, ‘체조계의 새 얼굴’, ‘고려 청자는 대한민국의 얼굴’, ‘얼굴을 세워 주다’의 다의적 용법은 초등학교 수준을 넘어선다. 또한 ‘다의어 알아맞히기 대회’는 ‘국어 활동’에서 2차시의 실천 학습인데, ‘문제 내기’, ‘예문 만들기’, ‘모둠별 학습’의 과정에 활동 내용의 초점이 잡히지 않아 교사나 학생이 진행하고 실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활동 과제의 어려움이다. 예컨대, 『독서와 문법』의 ‘문법’에서 ‘단어 의미의 확대’에 대한 활동 (17)은 ‘손’의 5가지 용법에 대해 중

7) 초등학교의 다의어에 관한 정의 (2)에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은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뜻을 가진 낱말’로 수정되어야 한다.

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누어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손’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기이다. 이 과정은 의미 확장에 대한 발상이 참신하나, 제시된 ‘손’의 용례가 의미의 확장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 연계의 문제점이다. 교육과정에서 다의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초등학교 ‘5~6학년군’,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I’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교과서에서 ‘다의어’를 취급하는 모습은 꽤 자의적이다. 즉 중학교 14종의 검정 교과서에서 7종만이 동음이의어와 구별하기의 관점에서 다의어를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교 11종의 검정 교과서 『국어 I』에서 7종만이 다의어를 다루고 있는데, 2.3.2에서 보듯이 교과서에서 다의어를 취급하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다.

요컨대, ‘다의어’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교육 내용은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며, 학교급에 따른 학습자의 발달과정 및 학습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 충분한 내용 요소가 결여됨으로써 효율적인 다의어 교육의 기초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3. 학교문법 다의어 교육의 바람직한 내용

여기서는 학교문법에서 다의어 교육의 바람직한 내용 요소 4가지를 제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반과정 및 심화과정의 4단계를 고려하여 다의어 교육의 위계를 설정하며, 그 중 한 요소를 대상으로 탐구학습 모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3.1. 다의어의 개념 학습

다의어의 개념 학습에는 ‘다의어의 정의’와 다의어를 포함한 ‘다의어의 경계’가 해당된다.

먼저, ‘다의어’의 정의는 (18)과 같다.

- (18) 다의어는 하나의 어휘항목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어휘항목의 ‘형태’에 대응되는 ‘의미¹, 의미²,... 의미ⁿ’의 관계를 ‘다의관계’라고 한다. 이 가운데 다의관계를 대표하는 것을 ‘중심 의미’ 또는 ‘원형의미’라 하고, 확장된 것을 ‘주변의미’ 또는 ‘확장의미’라고 한다.

다음으로, ‘다의어’ 또는 ‘다의관계’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단어의 ‘형태’와 ‘의미’ 대응에서 (19)와 같은 ‘불연속성(discreteness)’, 즉 ‘경계(boundary)’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19)는 하나의 ‘형태’에 대응하는 ‘의미’의 양상이 4가지 측면에서 다름을 보여 준다.

- (19) a. 타조는 새¹이지만, 새²처럼 날 수 없다.
 b. 벌¹을 전공한 그는 좀처럼 서두르는 벌²이 없다.
 c. 이 책¹은 두껍지만 저 책²만큼 지루하지 않다.
 d. 못¹이 못²에 빠졌다.

첫째, (19a)의 ‘새²’는 ‘새다운 새’의 보기이며 ‘새¹’은 ‘새답지 않은 새’의 보기로서 ‘새’, ‘새²’는 문맥적 변이의 ‘단의어(monosemic word)’이다. 이 경우 ‘단의어’란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맺어진 단어를 가리킨다.

둘째, (19b)의 ‘벌¹’은 ‘벌꿀’을 뜻하는 중심의미이며 ‘벌²’는 ‘습성’을 뜻하는 확장의미로서 ‘다의어(polysemous word)’이다.

셋째, (19c)의 ‘책¹’은 [형태]로서 ‘책’을 지칭하고 ‘책²’는 [내용]으로서 ‘책’을

지칭하는 ‘다면어(multi-faceted words)’이다. ‘다면어’는 한 단어가 몇 개의 국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는데,⁸⁾ 다면어의 국면은 한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각상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반면, 다의어는 의의가 개방적이며 분산되므로 그 전모를 하나의 영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다면어의 의의들은 대칭적이며 개별적인 원형을 갖는 반면,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는 비대칭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면어는 명사류에 국한되는 반면,⁹⁾ 다의어는 모든 어휘 부류에 나타난다 (임지룡 2009: 206, 2011: 176-181 참조).

넷째, (19d)의 ‘못1’은 ‘목재 따위의 접합이나 고정에 쓰는 물건’이며 ‘못2’는 ‘연못’으로서 ‘동음이의어(homonymous word)’이다. 정의상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뚜렷이 구별되는데, ‘동음이의어’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단어가 의미와 무관하게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이며, ‘다의어’는 한 형태의 단어가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와 의미의 어휘항목을 사전 간에 처리하는 방식 다르며, 하나의 사전 안에서도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을 만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20)의 ‘고개’, ‘목’, ‘턱’에서 보듯이 그 경계가 흐릿한 경우는 ㉠의 중심의미에서 ㉡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아 다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¹⁰⁾ 그 까닭은 한 언어공동체가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단

8) ‘책, 편지, 신문, 연설, 영화, 음반’ 등은 [형태]와 [내용]의 국면으로 이루어지며, ‘은행, 학교, 병원’ 등은 [건물]·[기구/법인]·[구성원], 그리고 ‘국가’는 [국민]·[영토]·[주권]의 세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책’ 및 ‘은행’과 같은 부류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큰 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등에서는 ‘단의어’로, 생성어휘부이론의 Pustejovsky(1995)에서는 ‘다의어’로, Cruse(1995, 1996, 2000a,b,c, 2001), Croft & Cruse (2004: 116-140), Kleiber (1997) 및 임지룡(1996, 2009, 2011) 등에서는 ‘다면어’로 기술하였다.

9) 명사류의 의미 확장에서 ‘나무의 종/목재의 유형’(소나무), ‘과일/나무’(사과), ‘꽃/식물’(장미), ‘짐승/고기’(닭), ‘작곡가/작곡가의 음악’(베토벤) 등 예측가능하고 되풀이되는 경우를 ‘체계적 다의관계’ 또는 ‘규칙적 다의관계’라고도 한다.

10) ‘고개’, ‘목’, ‘턱’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우리말 큰 사전(어문각)』,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의 ‘신체어’와 ㉡의 ‘공간 지칭’에 대

어의 경우 동음이의어로 기억 부담을 부가하기보다 기존 형태에 의미를 확장하여 다의어로 범주화하려는 경제적 인지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 (20) a. ‘고개’: ㉠목의 뒷등이 되는 부분(“고개가 아프다.”) ㉡산과 언덕을 넘어 다니게 된 비탈진 곳(“고개를 넘다.”)
 b. ‘목’: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목이 긴 여자”) ㉡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목에서 숨어서 적을 기다리다.”)
 c. ‘턱’: ㉠사람의 입 아래에 있는 뾰족하게 나온 부분(“턱에 수염이 나다.”) ㉡평평한 곳의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높이 된 자리(“턱이 지다.”)

요컨대, 2장에서 살펴본 학교문법의 ‘다의어’ 교육에서는 ‘동음이의어’와의 구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형태와 의미의 대응관계에서 다의어와 구별되는 어휘항목에는 ‘동음이의어’뿐만 아니라 ‘단의어’, ‘다면어’가 존재하므로, 다의어의 개념 학습에는 이들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3.2. 다의어의 의미확장 학습

다의어의 의미확장 학습에는 인간 경험의 경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전형적 확장 경로를 보기로 한다(임지룡 2009: 211-214 참조).

첫째, ‘사람→동물→식물→무생물’의 확장 경로로서, (21)의 ‘눈’과 ‘먹다’를 보기로 한다.

- (21) a. ‘눈’: ㉠사람의 눈(“눈이 작은 소녀”) ㉡동물의 눈(“매의 눈”) ㉢식물

해 ‘고개’와 ‘턱’은 동음이의어로, ‘목’은 다의어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국어대사전(민중서림)』에서는 ‘턱’은 동음이의어로, ‘고개’와 ‘목’은 다의어로 기술하고 있다.

- 의 눈(“새싹의 눈”) ㉔사물의 눈(“그물·저울·바둑판·태풍의 눈”) b. ‘먹다’: ㉑사람이 먹는 행위(“소년이 밥을 먹었다.”) ㉒동물이 먹는 행위(“소가 풀을 뜯어 먹었다.”) ㉓식물이 먹는 행위(“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먹었다.”) ㉔무생물이 먹는 행위(“기름·풀 먹은 종이”)

둘째, ‘공간→시간→추상’의 확장 경로로서, (22)의 ‘틈’과 ‘깊다’를 보기로 한다.

- (22) a. ‘틈’: ㉑공간의 벌어짐(“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㉒시간의 벌어짐(“틈이 없다.”) ㉓관계의 벌어짐(“우정에 틈이 생겼다.”) b. ‘깊다’: ㉑공간의 깊음(“동굴이 깊다.”) ㉒시간의 깊음(“밤이 깊다.”) ㉓관계의 깊음(“인연이 깊다.”)

셋째,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심리적 위치’의 확장 경로로서, (23)의 ‘~에 있다’를 보기로 한다.

- (23) ‘~에 있다’: ㉑물리적 위치(“그는 집에 있다.”) ㉒사회적 위치(“그는 회사에 있다.”) ㉓심리적 위치(“행복은 언제나 당신 마음속에 있다.”)

넷째, ‘문자성→비유성→관용성’의 확장 경로로서, (24)의 ‘짧다’를 보기로 한다.

- (24) ‘짧다’: ㉑문자적 짧음(“연필이 짧다.”) ㉒비유적 짧음(“실력이 짧다.”) ㉓관용적 짧음(“남편은 입이 짧다.”)

요컨대, 의미의 확장은 ‘사람, 공간, 물리적 위치, 문자성’ 등 우리의 신체적 및 구체적 경험의 바탕에서 추상적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다의어가

형성된다.

3.2. 다의어의 의미구조 학습

다의어의 의미구조 학습에는 ‘핵심구조’, ‘연쇄구조’, ‘망구조’가 포함된다.

첫째, ‘핵심구조’는 다의관계를 이루는 의미들 간에 ‘핵심 의미’ 즉 ‘중심의미’를 공유하는 구조이다. (25)의 ‘목’은 ‘대상간의 잘록한 부분’을 공유하는 ‘핵심구조’에 해당한다.

- (25) a.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목이 긴 여자”)
 b. 목구멍(“목이 킁킁하다.”)
 c. 어떤 물건에서 동물의 목과 비슷한 부분(“그 병은 목이 길다.”)
 d. 자리가 좋아 장사가 잘되는 곳이나 길 따위(“목 좋은 점포”)
 e. 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
 (“목을 지켰다.”)

둘째, ‘연쇄구조’는 다의관계를 이루는 의미들이 중심의미에서 연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이다. 예컨대, ‘고락’은 ‘낙지의 배→그 배 속의 검은 물→그 물이 담긴 주머니’의 ‘연쇄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26)의 ‘벤치’도 그러하다.

- (26) a.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긴 의자(“여학생들이 나무 밑 벤치에 앉아 있다.”)
 b. 운동 경기장에서, 감독과 선수들이 앉는 자리(“감독은 후반 들어 주전들을 벤치로 불러들였다.”)
 c. 감독(“선수들이 벤치의 지시를 어겼다.”)

셋째, ‘망구조’는 중심의미인 ‘원형’과 유사성을 통하여 수평적으로 ‘확장’

관계를 이루며 원형과 확장의 공통성을 추상화하여 수직적으로 ‘도식’ 관계를 이루는 구조이다. ‘망’의 기본 구조는 확장과 도식의 순환 작용에 의해 복합적인 망으로 확대된다. (27)에서 ‘가다’는 중심의미에서 동물의 이동, 차량의 이동, 시간적 이동, 동작에 대한 추상적 이동, 상태 이동이 서로 ‘망구조’로 확장된다.

- (27) a. 중심의미(구체적 이동): “학생이 학교에 간다.”
- b. 동물의 이동(구체적 이동): “소가 간다.” “새가 앉았다 간다.”
- c. 차량의 이동(구체적 이동): “기차가 간다.”
- d. 시간적 이동: “시간이 간다.”
- e. 동작(추상적 이동): “동정이 간다.” “판단이 간다.”
- f. 이동(상태 이동): “맛이 간다.” “결심이 오래 간다.”

요컨대, 의미구조 학습은 종래 다의어가 핵심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다양한 구조 탐색을 통해 핵심구조뿐만 아니라, 연쇄구조와 망구조의 열린 시각을 체험할 필요가 있겠다.

3.4. 다의어의 비대칭성 학습

다의어의 중심의미와 주변의미의 비대칭성 학습에는 ‘구조적 · 빈도적 · 인지적 비대칭성’이 포함된다(임지룡 1998: 314-328, 2001: 180-186 참조). ‘사다’와 ‘팔다’의 다의적 용법 (28)을 중심으로 비대칭성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8)에서 ㉠은 중심의미이며, ㉡~㉣은 주변의미이다.

- (28) a. ‘사다’: ㉠공책을 사다. ㉡병(病)을 사다. ㉢인심을 사다. ㉣공로를 높이 사다.
- b. ‘팔다’: ㉠공책을 팔다. ㉡양심을 팔다. ㉢한눈을 팔다. ㉣아버지의 이름을 팔다.

첫째, ‘사다’와 ‘팔다’가 중심의미로 사용될 때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거래 행위의 의미를 표시하며, ‘사다’와 ‘팔다’ 사이에 대립관계가 성립하지만, 주변의미로 쓰일 때는 그렇지 않다.

둘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29)와 같이 ‘사다, 팔다’의 중심의미는 통사적 제약이 없는 반면, 주변의미는 가격표시나 장소, 그리고 ‘(비)싸게’ ‘(잘)잘못’ 등의 평가 부사어가 올 수 없는 등 제약을 지닌다.

(29) {공책/²병(病)/²인심/²공로/²양심/²한눈}을 {오천 원에/시장에서/싸게/
비싸게/잘/잘못} {사다/팔았다}.

셋째, 빈도적인 측면에서 ‘사다, 팔다’의 중심의미는 주변의미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1997, 교육부)의 경우 ‘사다’는 254회, ‘팔다’는 44회의 빈도수를 갖는데, 그 의미적 용법에 따른 빈도수의 양상은 (30)과 같다.

- (30) a. 사다(254회): ㉠사는 이가 파는 이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소유하다.
(254회: 100%)
b. 팔다(44회): ㉡파는 이가 사는 이에게 상품을 주고 돈을 소유하다.
(41회: 93.18%) ㉢감각 기관의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 (3회: 6.82%)

넷째, 인지적인 측면에서 ‘사다, 팔다’의 중심의미는 주변의미에 비해 더 뚜렷한 특징을 갖는다. 즉 중심의미로 사용되는 ‘사다’와 ‘팔다’는 주변의미에 비해 언어 습득이나 학습의 시기가 빠르며, 우리 머릿속에 뚜렷이 각인됨으로써 일상 언어생활에서 더 쉽게 이해되고 연상된다. 그에 비해 주변의미로 사용되는 ‘사다’와 ‘팔다’는 구체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가 아니므로, (28)의 ‘사다’ 및 ‘팔다’에서 중심의미 ㉠과 주변의미 ㉡~㉢이 동일한 단어인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요컨대, ‘사다’와 ‘팔다’의 다의적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중심의미와 주변의미는 비대칭적인데, 중심의미가 주변의미에 비해 구체적이며, 구조적·빈도적·인지적 측면에서 우월성을 띠고 있다.

3.5. 다의어의 위계 설정

위 3.1~3.4에서 제시한 다의어 교육의 내용 요소인 ‘개념 학습’, ‘의미구조 학습’, ‘의미확장 학습’, ‘비대칭성 학습’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일반 및 국어심화의 4단계 위계를 설정해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다의어의 학습은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

- (31) a. 다의어의 개념 이해하기(☞ (18) 참조)
- b. 다의어와 단어 구별하기(☞ (19a) 참조)
- c. 사전에서 다의어 찾아보기

중학교에서 다의어의 학습은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

- (32) a. 다의어의 개념과 관련된 기능 이해하기¹¹⁾(☞ 3.1. 참조)
- b.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구별하기 및 사전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찾아보기(☞ (19d) 참조)
- c. 다의어의 ‘핵심구조’ 이해하기(☞ (25) 참조)

고등학교 국어일반에서 다의어의 학습은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

- (33) a. 다의어의 의미확장 경로 탐구하기(☞ (21)~(24) 참조)

11) ‘다의어의 기능’이란 어떤 어휘항목의 중심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여 새말을 만들게 되면 언어공동체의 기억 부담량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다의어의 기능은 경제성과 유연성을 갖는다.

- b. 사전 간에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다른 처리에 대한 용례 탐구하기(☞ (20) 참조)
- c. 다의어의 ‘연쇄구조’ 탐구하기(☞ (26) 참조)

고등학교 국어심화에서 다의어의 학습은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

- (34) a. 다의어의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간 비대칭성 탐구하기(☞ (28)~(30) 참조)
- b. 다의어와 다면어 탐구하기(☞ (19c) 참조)¹²⁾
- c. 다의어의 ‘망구조’ 탐구하기(☞ (27) 참조)

요컨대, (31)~(34)에서 제시된 다의어 학습의 위계는 하나의 시안으로서 학습자의 인지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사항이다.

3.6. 다의어의 ‘비대칭성’ 탐구학습

고등학교 국어심화 과정의 일환으로, 다의어의 교육 내용 요소 가운데 하나인 3.4. 및 (34a)의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간 비대칭성’을 대상으로 ‘탐구학습’의 모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임지룡 2001: 180-186, 임지룡 외 2010: 194-197 참조).¹³⁾

12) ‘다면어’에 대한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경우 (19b, c)의 ‘법’ 및 ‘책’과 같은 용례로써 다면어와 대비되는 다의어의 특성을 탐구할 수도 있다.

13) ‘2009 개정 교육과정(2012.12.)’의 ‘독서와 문법’에 대한 ‘교수·학습 운용’에서는 “국어 자료를 다루는 문법 교수·학습에서는 문제 제기, 가설 설정, 가설 증명, 결론 도출, 결론의 일반화와 같은 학습자의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고 하여 ‘탐구 학습’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 ‘문법’의 교사용 지도서(2002)에 제시된 탐구 학습 과정은 ‘목표 설정’(목표의 확인 및 문제의 정의), ‘원리학습’(가설의 설정), ‘탐구 학습’(가설의 검증, 결론의 도출), ‘발전학습’(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평가’(결과의 확인)로 되어 있다.

첫째, 탐구 목표는 “다의어의 중심의미와 주변의미가 구조적, 빈도적, 인지적 측면에서 비대칭적임을 이해한다.”이다.

둘째, 탐구 과정은 ‘문제 인식’, ‘가설 세우기’, ‘문제 해결’, ‘적용’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문제 인식

- ① 지도 중점: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통해 다의어의 중심의미와 주변의미의 비대칭성을 체험한다.
- ② 교수·학습 활동: <표 7>의 ‘사다’, ‘팔다’ 용법에 대해, 그 의미의 대칭성 여부를 검토해 본다.

〈표 7〉 ‘사다’, ‘팔다’의 용법

‘사다’

- ①사는 이가 파는 이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소유하다. (“수박을 사다.”)
- ②돈을 주고 노동력을 소유하다. (“품을 사다.”)
- ③돈을 주고 음식 따위를 소유하여 함께 먹다. (“점심을 사다.”)
- ④상품을 팔아 돈을 소유하다. (“쌀을 팔아 돈을 사다.”)
- ⑤병이나 걱정거리를 소유하다. (“병을 사다.”)
- ⑥고생 따위를 의도적으로 소유하다. (“고생을 사서하다.”)
- ⑦다른 사람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 및 표정을 소유하다. (“인심을 사다.”)
- ⑧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값을 매기다. (“공로를 높이 사다.”)

‘팔다’

- ①파는 이가 사는 이에게 상품을 주고 돈을 소유하다. (“수박을 팔다.”)
- ②노동력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돈을 소유하다. (“품을 팔다.”)
- ③자신의 상징물을 대중 매체에 제공하고 돈이나 인기를 소유하다. (“텔레비전에 얼굴을 팔다.”)
- ④돈을 주고 곡식을 소유하다. (“돈으로 쌀을 팔다.”)
- ⑤부정적인 대상을 상품으로 떠넘기다. (“더위를 팔다.”)

- ⑥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가족이나 친지를 상품으로 이용하다. (“아버지의 이름을 팔다.”)
- ⑦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대상을 상품화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다. (“양심을 팔다.”)
- ⑧감각 기관의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 (“정신을 팔다.”)

[2] 가설 세우기

- ① 지도 중점: 다의어의 의미가 비대칭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설을 세우도록 한다.
- ② 교수·학습 활동: <표 8>의 질문을 탐구하면서 ③의 [] 속에 핵심어를 넣어 가설을 세워 본다.
- ③ 다의어의 중심의미와 주변의미는 [], [], [] 측면에서 비대칭적이다.

<표 8> 중심의미와 주변의미의 차이

‘중심의미와 주변의미의 대조’

- (1) 합성이나 파생의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통사적으로 제약을 덜 받는 것은?
- (2)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은?
- (3) 어린이들이 더 빨리, 더 쉽게 배우며, 일반인들이 더 쉽게 연상하는 것은?

[3] 문제 해결

- ① 지도 중점: 다의어 용법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가설을 확인하고 ‘다의어의 비대칭성’을 해석하도록 한다.
- ② 교수·학습 활동: <표 9>의 세 가지 자료가 비대칭성의 어떤 근거 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본다.

〈표 9〉 ‘사다’와 ‘팔다’의 의미작용

1. ‘사다’, ‘팔다’의 용법
①(쌀/*양심)을 사들이다/내다팔다
②(공책/*병(病)/ ² 인심/ ² 공로/ ² 양심/ ² 한눈)을 {오천 원에/시장에서/싸게/비싸게/잘/잘못} (사)다/(팔)았다.
2. 초등학교 『국어』에서 ‘사다’, ‘팔다’의 빈도수
‘사다’(254회): ㉠사는 이가 파는 이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소유하다. <254회: 100%>
‘팔다’(44회): ㉠파는 이가 사는 이에게 상품을 주고 돈을 소유하다. <41회: 93.18%> ㉡감각 기관의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 <3회: 6.82%>
3. ‘사다’, ‘팔다’의 친숙도
①학생들(초 61명, 중 81명, 고 78명)에게 ‘사다’ ‘팔다’라는 낱말을 넣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 1개를 쓰게 한 결과 각각 총 221개 문장 가운데, ‘사다’는 99.09%, ‘팔다’는 93.21%가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②학생들이 ‘사다’, ‘팔다’에 관해 중심의미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변의미는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 반응했다.

[4] 적용

- ① 지도 중점: 다른 예를 찾아 다의어의 비대칭성을 확인한다.
- ② 교수·학습 활동: ‘길’, ‘가다’, ‘짧다’의 중심의미와 주변의미를 대상으로 구조적, 빈도적, 인지적 측면에서 비대칭성을 탐구한다.

요컨대, 위에서 제시한 ‘탐구 과정’의 ‘문제 인식’, ‘가설 세우기’, ‘문제 해결’, ‘적용’의 4단계는 핵심 사항만 명시한 것으로 장차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서 그 내용 요소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구체화해야 할 사항이다.

4. 마무리

이상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2012.12.)’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의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문법에서 다의어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간추려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초등학교 ‘5~6학년군’의 ‘문법’ 및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문법’에 명시되어 있다. 부차적으로, 초·중학교 ‘문법’ 및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성취기준·성취수준’, 그리고 초등학교 ‘문법’ 및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핵심 성취기준’에서 ‘다의어’ 또는 ‘다의 관계’의 기준 및 수준이 명시되고 있다. 둘째, ‘교과서’에서 다의어에 관한 사항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국어 5-1⑦』 및 『국어 활동 5-1⑦』에서, 중학교 검정 교과서 『국어 ③,④』의 7종에서,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국어 I』의 7종에서, 『독서와 문법』의 6종에서 ‘다의어’를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의어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다의어는 ‘초등학교’의 ‘문법’ 및 ‘고등학교’의 ‘독서와 문법’에 명시된 채 ‘중학교’와 ‘고등학교(『국어 I』)’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이 불충분하며 학교급간 위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교과서에서 다의어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며, 중학교 7종과 고등학교 일반 과정 7종 교과서에서는 다의어를 독자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동음이의어와의 구별, 한자어와 대비되는 고유어의 특성 또는 반의어의 부차적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심화 과정의 『독서와 문법』 6종간에는 공유의 폭이 매우 좁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다의어에 관한 추상적이고 비명시적인 기술로 교과서에서 다의어의 기술은 자의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의어’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연계성, 내용요소의 위계성 및 적합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

끝으로, 다의어 교육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의어 교육의 내용 요소는 정의와 경계의 문제에 대한 ‘개념 학습’, 신체 및 구체적 경험에서 추상적 경험으로의 ‘의미확장 학습’, 핵심구조·연쇄구조·망구조에 관한 ‘의미구조 학습’, 구조·빈도·인지에 관한 ‘비대칭성 학습’을 제시하였다. 둘째,

4가지 교육 내용 요소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일반 및 국어심화의 4단계 위계를 설정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국어심화 과정에서 ‘사다’ 및 ‘팔다’의 중심의미와 확장의미의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탐구학습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고경태(2008), “다의성 동사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보다’를 중심으로”, 한국 어교육 19-21,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21-41.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초등학교 5~6학년』.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중학교 국어』.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국어』.
- 김영기(2000), “탐구 학습에 의한 다의어 의미 지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2005),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교육 71, 한국어교육학회, 7-89.
- 문금현(2006),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143-177.
- 서희경(2013), “한국어 동사 다의어의 언어중심 교육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엄기예(2003), “탐구 학습을 통한 다의어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왕미자(2014), “한국어 다의어 교육을 위한 의미망 구축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정화(2013), “한국어 학습자의 다의어 교육을 위한 교재 분석 연구: ‘가다’, ‘오다’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민우(2012), “의미 확립 단계를 이용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언어학연구 22, 한국중원언어학회, 163-177.
-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한국언어학회, 229-261.
- 임지룡(1998),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언어과학회, 309-331.
- 임지룡(2001), “다의어 ‘사다’ ‘팔다’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165-190.
-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

의미학회, 193-226.

임지룡(2011), “다의어와 다면어의 변별 기준과 의미 특성”,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169-190.

임지룡·임철성·심영택·이문규·권재일(2010), 『문법 교육론』, 역락.

정수진(2009),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문학과 언어 31, 문학과 언어학회, 30-54.

주현정(2010), “탐구 학습을 통한 다의어의 의미 지도 연구: 의미 확장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하화정(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연구 : 동사 ‘오다, 가다, 보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한유리(2012), “다의어 교육 방안 연구: 2009 개정 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Cruse, D.A.(1995), “Polysemy and related phenomena from a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in P. Saint-Dizier & E. Viegas(eds.), *Computational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49.

Cruse, D.A.(1996), “La signification des noms propres de pays en anglais”, in S. Rémi-Giraud & P. Rétat. eds., *Les Mots de la Nation*, Lyon: PUL, 93-102.

Cruse, D.A.(2000a), “Lexical ‘facets’: between monosemy and polysemy”, in S. Beckmann, P. König & T. Wolf. eds., *Sprachspiel und Bedeutung*,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25-36.

Cruse, D.A.(2000b), *Meaning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2002), 『언어의 의미: 의미·화용론 개론』, 태학사.)

Cruse, D.A.(2000c), “Aspects of the micro-structure of word meanings”, in Y. Ravin & C. Leacock(eds.), *Polysemy: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0-51.

Cruse, D.A.(2001), “Microsenses, default specificity and the semantics- pragmatics boundary”, *Axiomathes* 12, 35-54.

Croft, W. & D.A. Cruse(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두식·나익주 옮김(2010), 『인지언어학』, 박이정.)

Kleiber, G.(1997), “Cognition, sémantique et facettes: une ‘histoire’ de livres et de romans”, in G. Kleiber & M. Riegel. eds., *Les Formes du Sens*. Louvain: Duculot, 219-231.

Pustejovsky, J.(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임지룡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02-701

전화 번호: 053-950-5827, 010-2254-8710

전자 우편: jrlim@knu.ac.kr

접수 일자 : 6월 10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 6월 15일 ~ 7월 7일

게재 확정 일자 : 7월 12일

〈Abstract〉

The Status of Polysemy Teaching in School Grammar and Its Alternatives.

Lim Ji-Ryong(Kyungpook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polysemy teaching in school grammar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 (Dec., 2012),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status of polysemy teaching and its associated problem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1) Polysemy is mentioned in primary school 'grammar' and in senior high school 'reading and grammar', but not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Korean I'. The content is insufficient and the levels of schools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2) Polysemy-related content appears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2 primary school textbooks, 7 junior high school textbooks, and 7 kinds of 'Korean I' and 6 kinds of 'reading and grammar' in senior high school textbooks. However, the level of the two primary school textbooks is unrealistically high and the seven junior high school textbooks do not treat polysemy separately. In addition, the six kinds of 'reading and grammar' at senior high school level have little in common. (3) The description of polysemy in the textbooks is arbitrary because of its vague description in the curriculum.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therefore suggested. (1) 'Concept learning', 'semantic extension learning', 'semantic structure learning', and 'asymmetry learning' should be set as basic elements of polysemy teaching. (2) A four-level hierarchy of the elements of teaching content should be established, i.e., at upper primary level, general junior high school level, and general and intensive senior high school level. (3) An exploration model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asymmetry'

of the central meanings and the extended meanings of 'buy' and 'sell' in the intensive course at senior high school level.

Key words: polysemy, central and extended meaning, school grammar, curriculum and textbooks, concept learning, semantic extension learning, semantic structure learning, and asymmetry learning